

부모의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의 타당화: Rasch 모형 적용

문주연* · 이은주**

Ⅰ 알기 쉬운 개요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독립을 촉진하는 행동과 자녀의 의지적 기능을 촉진하는 행동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독립 촉진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4문항과 의지적 기능 촉진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4문항이 선정되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부모의 독립 촉진에 비해 의지적 기능 촉진이 자녀의 자기결정적 학습동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 촉진보다는 의지적 기능 촉진을 통해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 설문지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설문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elee@knu.ac.kr

투 고 일 / 2022. 9. 2.

심 사 일 / 2022. 10. 25.

심사완료일 / 2022. 11. 2.

DOI/10.14816/sky.2022.33.4.141

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Soenens 외(2007)가 개발한 자율성 지지 척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69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단축형 척도를 구성한 후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독립 촉진(Promotion of Independence; PI)과 의지적 기능 촉진(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VF)으로 구성되는 2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I 척도와 PVF 척도 모두 문항반응범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 일치도, 문항의 적합도, 문항 내용의 중복성, 문항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I와 PVF에서 각각 네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단축형 자율성 지지 척도는 원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 PI와 PVF의 신뢰도가 모두 높았고, 2요인구조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였으며, 두 요인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하였다. PI와 PVF 모두 무동기, 외적 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내재적 조절을 제외한 모든 조절유형에서 PI보다 PVF가 유의하게 더 강한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 자율성 지지, 독립 촉진, 의지적 기능 촉진, 단축형 척도, Rasch 모형, 자기결정성동기

I. 서 론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이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율과 통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규정하는 대표적 특성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등 다양한 측면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국진, 이은주, 2017; Costa, Cuzzocrea, Gugliandolo & Larcan, 2016; Soenens et al., 2018). 이처럼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적응 기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는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자녀의 독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달리 Soenens 외(2007)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자녀의 의지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Soenens 외(2007)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자녀의 독립 촉진(Promotion of Independence; PI, 이하 PI)과 의지적 기능 촉진(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VF, 이하 PVF)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PI와 PVF의 2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를 제안하였다.

Soenens 외(2007)의 자율성 지지 척도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PI와 PVF의 두 가지 구인으로 개념화하고 두 개의 분리된 하위척도인 PI 척도와 PVF 척도를 모두 포함하는 유일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지만(권오연, 임정하, 2021; McCurdy, Williams, Lee, Benito-Gomez & Fletcher, 2020),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제한점이 있다. 이 척도는 PI와 PVF의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문항들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면, PI 척도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다.”와 “나의 부모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의 문항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이므로 서로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PVF 척도의 경우에도 “나의

부모님은 가능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신다.”와 “나의 부모님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신다.”의 문항은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이므로 서로 중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의 문항이 다수 포함되면 척도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피로도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질 위험도 있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척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단일 척도에서 중복적인 문항이 많으면 응답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구성하는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측정학적 검토를 통해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단축형 척도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보다 적은 수의 문항들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단축형 척도의 구성은 부모의 양육 방식 관련 연구의 수행과 학교현장에서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축형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들은 주로 요인분석에 기초한 고전적인 검증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Rasch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별 문항의 난이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기 어려운 요인분석과 달리 Rasch 모형은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문항의 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내기 때문에 문항 난이도는 응답자의 점수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응답자의 특성 추정은 문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응답자에 대한 신뢰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김명숙, 설현수, 2007; 김성숙, 박찬옥, 설현수, 2009; 홍세희 외,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신뢰롭고 타당한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실제로 PI와 PVF로 구분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자율성 지지의 요인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PI와 PVF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단일요인으로서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우리, 김정섭, 2016; 서영정, 조영아, 2020; 차유미, 엄우용, 2018; Andreadakis, Joussemet & Mageau, 2019; Mageau et al., 2015; Won & Yu, 2018).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PI와 PVF로 구분되는 경우 자녀의 적응에 대한 예측력에서 PI와 PVF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yers & Goossens, 2003; Soenens et al., 2007; Soenens, Vansteenkiste & Sierens, 2009; Van Petegem, Beyers, Vansteenkiste & Soenens, 2012). 대체로 자녀의 적응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PI보다 PVF였으며, PI의 효과는 PVF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Bentino-Gomez,

Williams, McCurdy & Fletcher, 2020; Marbell-Pierre, Gronlick, Stewart & Raftery-Helmer, 2017). 따라서 Soenens 외(2007)가 제안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PI와 PVF의 2요인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PI와 PVF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PI와 PVF로 구분되는 2요인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자율과 통제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Baumrind, 1967), 최근에는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부모 양육방식의 개별적인 구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어서는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분리-개별화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들 수 있다.

분리-개별화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며, 점차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개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분리와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 아동은 행동적, 인지적, 및 정서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다(Blos, 1979). 다시 말해, 분리-개별화이론에서 아동의 자율성 발달이란 분리-개별화의 과정이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이란 자녀의 독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의 반대개념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독립 대신 부모에게 의존을 강조하는 양육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개별화이론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연속체의 양 끝에 자리하고 있는 상반된 개념으로 낮은 자율성 지지는 높은 심리적 통제를, 높은 자율성 지지는 낮은 심리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자녀의 의지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oenens et al., 2007). 즉, 자녀가 주도권을 갖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관점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며 선택이 제한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고, 자녀에게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자율성 지지란 자녀의 의지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 가치, 중요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의지적 기능을 촉진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의하면, 자율성이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성의 반대 개념은 의존이 아니라 타율성이다(Deci & Ryan, 2000).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외부에 의해 결정된 통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느낄 때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의지적 선택의 결과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비록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Soenens 외(2007)는 이처럼 자녀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지지적 양육방식을 PVF로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독립을 강조하는 자율성 지지(즉 PI)와 구별되는 구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Soenens 외(2007)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독립 촉진과 의지적 기능 촉진으로 구분하고, PI와 PVF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제안하였다(Soenens & Beyers, 2012).

PI와 PVF는 모두 자녀의 자율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PI는 부모가 자녀의 의존 대신 독립을 촉진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반면, PVF는 부모가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통제적 방식 대신 자율적 방식으로 촉진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PI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는데, 이때 부모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지할 수도 있지만 통제적인 방식을 통해 자녀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반면, PVF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는데, 이때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부모는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자녀는 부모의 조언과 정보를 활용하지만 의지적 기능을 발휘하여 스스로 행동하게 된다. 종합하면, PI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자율적인 방식이나 통제적인 방식으로 촉진할 수도 있으나, PVF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흥미와 가치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데 부모는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방식으로만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Soenens 외(2007)는 분리-개별화이론과 자기결정성이론의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독립 촉진으로서의 자율성 지지와 의지적 기능 촉진으로서의 자율성 지지를 포함하는 구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 촉진(PI)과 의지적 기능 촉진(PVF)의 2요인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PI와 PVF가 서로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별개의 구인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PI와 PVF 모두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므로 자녀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행동에서 PI와 PVF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일차원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PI와 PVF로 구분되는 2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지만(권오연, 임정하, 2021; Soenens et al., 2007; Soenens et al., 2009; Van Petegem et al., 2012), PI와 PVF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1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희란, 2013), 또는 별도의 요인구조 검증 없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일차원성 요인으로 간주한 연구도 있다(김우리, 김정섭, 201; 서영정, 조영아, 2020; 차유미, 엄우용, 2018; Andreadakis et al., 2019; Mageau et al., 2015; Won & Yu, 2018). 따라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PI와 PVF의 두 개의 독립적인 구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적응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Brenning, Soenens, Van Petegem & Vansteenkiste, 2015; Ratelle, Duchesne & Guay, 2017; Vasquez, Patall, Fong, Corrigan & Pine, 2016).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PI와 PVF로 구분할 경우 자녀의 적응에 있어 PI와 PVF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yers & Goossens, 2003; Soenens et al., 2007; Soenens et al., 2009; Van Petegem et al., 2012). 즉, PVF가 일관되게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PI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Beyers & Goossens, 2003),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Soenens et al., 2007), 오히려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Van Petegem et al., 2012). 예컨대 Soenens 외(2007)의 연구에서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안녕감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PI와 PVF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PI에 비해 PVF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I와 PVF가 예측변수로 동시에 구조모형에 투입된 경우 PVF만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PI의 고유한 독립적인 예측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enens 외(2009)의 군집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독립과 의존의 수준, 의지와 통제의 수준에 따라 의지-독립형, 의지-의존형, 통제-독립형, 통제-의존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의지-독립형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적응을 보였으며,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적 적응에 있어 의지-독립형과 의지-의존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독립형과 통제-의존형의 경우 의지-독립형과 의지-의존형에

비해 자녀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유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과 의존의 수준과 무관하게 의지형이 통제형에 비해 높은 적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립과 의존의 수준보다 의지와 통제의 수준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방식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 촉진으로서의 자율성 지지와 의지적 기능 촉진으로서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발달이 주된 과업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5, 6학년 초등학생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PI와 PVF로 구분하여 지각하는지, PI와 PVF가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위한 내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결정성이라는 연속선상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조절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행동에 관한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무동기를 포함하여 자기결정성의 수준에 따라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의 순으로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Deci & Ryan,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동기(amotivation)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은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상태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므로 전형적으로 외적 제약에 의해 행동하는 상태이다.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조절의 힘이 개인의 내부에 있으나 행동에 대한 원인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중요성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하므로 자기결정성의 내면화 수준이 높다.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은 행동 자체의 흥미와 즐거움으로 인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로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조절 유형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이처럼 다양한 자기조절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조절의 내면화를 통한 동기의 발달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조절의 충분한 내면화는 개인의 자기결정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율성 욕구는 모든 문화권에서 그리고 모든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필수요소로 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Deci & Ryan, 2000). 자율성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는 다시 자녀의 자기조절의 내면화를 촉진한다. 자기조절의 내면화를 통해 자녀는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자라고 느끼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이며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조절의 내면화가 촉진되어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높은 조절유형을 갖게 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이은주, 2021; 임성애, 이은주, 2020; Roth, Kanat-Maymon & Assor, 2016).

이처럼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보편적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욕구의 충족과 자기조절의 내면화 촉진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외적 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준거관련 변인인 자기결정성동기의 각 조절유형(무동기,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과의 관계에서 PI로서의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PVF로서의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PI와 PVF가 실제로 구분되는 구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I와 PVF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인이지만 두 구인 모두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하므로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상관에서 PI와 PVF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녀의 적응에 대해 PI보다 PVF의 효과가 일관적으로 더 뚜렷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Bentino-Gomez et al., 2020; Marbell-Pierre et al., 2017)을 고려하면, PVF와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상관이 PI와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상관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동기에 대해 PI와 PVF가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Soenens 외(2007)의 부모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Rasch 모형을 사용한 양호도 검증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구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고, 사전에 정한 반응범주(예: Likert 5점 척도)에 대한 응답 자료에 대해 요인 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척도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 심리측정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Zhu, Timm & Ainsworth, 2001). 척도의 속성이 응답자 표본에 의해 결정되며, 응답자의 속성 역시 문항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Likert 척도의 경우 문항이 서열척도임에도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총점을 계산하며, 척도 개발자가 정한 반응범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경험적 검토과정 없이 수용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Rasch 모형이 권장되고 있다(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 검사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의 고유한 문항특성곡선을 분석하는 Rasch 모형은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는데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첫째,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응답자의 특성과 문항의 특성을 상호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표본의 분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하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둘째,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로짓으로

제공되는 측정치는 등간척도이므로 응답자의 능력 추정치와 문항의 난이도 추정치를 하나의 척도 위에 위치시켜 비교함으로써 문항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평정척도를 분석함으로써 척도의 각 범주별 난이도를 계산하여 평정척도의 범주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넷째, 개별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문항이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문항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응답자에 대한 신뢰도를 모두 제공하여 검사점수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평정척도모형(Rating Scale Model; Andrich, 1978)은 Likert 척도에서 산출된 서열자료를 등간자료로 변환하여 단계별 난이도를 계산하고 평정척도 범주의 기능을 검증할 수 있다(김명숙, 설현수, 2007; 김성숙, 박찬옥, 설현수, 2009; 홍세희 외, 2018). 이처럼 Rasch 모형은 단축형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에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기 위해 Rasch 모형을 사용하여 척도의 양호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는 Soenens 외(2007)가 개발한 자율성 지지 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기 위해 A시 소재 6개 초등학교를 무선표집하였다.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696명을 학급단위로 조사하였다. 남학생은 343명(49.3%), 여학생은 349명(50.1%),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4명(0.6%)이 포함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기(12~13세)는 자율성의 발달이 주된 과업인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다(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아동기에 비해 인지적 및 언어적 능력의 발달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동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고 보고할 수 있다(McCurdy et al., 2020). 이처럼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발달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자료조사를 위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었다. 조사에 앞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연구참여자가 응답한 설문지의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Soenens 외(2007)가 개발한 자율성 지지 척도를 이회란(2013)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독립 촉진(예: 부모님은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다)과 의지적 기능 촉진(예: 부모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신다)의 두 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독립 촉진을 측정하는 8문항과 의지적 기능 촉진을 측정하는 6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매우 아니다=1, 매우 그렇다=5)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 촉진과 의지적 기능 촉진의 수준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독립 촉진은 .74, 의지적 기능 촉진은 .86으로 나타났다.

2) 자기결정성동기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08)의 학업적 자기조절설문지(K-SRQ-A)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수준에 따라 내재적 조절(예: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확인된 조절(예: 나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공부한다), 내사된 조절(예: 나는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외적 조절(예: 나는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무동기(예: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를 각각 여섯 문항씩으로 구성한 다섯 개의 하위척도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매우 아니다=1, 매우 그렇다=5)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조절, 확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의 수준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재적 조절은 .89, 확인된 조절은 .86, 내사된 조절은 .78, 외적 조절은 .72, 무동기는 .77로 나타났다.

3. 분석절차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Mplus 8.3, WINSTEPS 6.38.2를 사용하였다. Andrich(1978)의 평정척도 모형(Rating Scale Model; RSM)을 적용하였으며, Linacre(2009)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평정척도 분석을 통해 문항반응범주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반응범주 곡선을 도출하여 각 반응범주에 대한 관찰 빈도(10회 이상), 평정척도 점수의 증가에 따른 응답자의 평균 속성 추정치의 증가, 외적합도 지수(2.0 이하), 평정척도 점수의 증가에 따른 평정척도 경계점의 증가, 이웃하는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5점 척도인 경우 최소 0.81 이상 최대 5.0 이하, 4점 척도인 경우 최소 1.1 이상, 최대 5.0 이하)를 확인하였다(Linacre, 2002).

둘째, 원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과 함께 CFI, TLI, RMSEA, SRM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FI와 TLI는 .95 이상, RMSEA는 .05 이하, SRMR은 .08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를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각 하위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를,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90 이하이면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외, 2019; Kline, 2011).

셋째, 척도의 신뢰도 및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제거 시 α 계수를 검토하였으며 문항 및 응답자 분리신뢰도와 분리지수를 산출하였다. 문항 및 응답자 분리신뢰도는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클수록 서열의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문항 및 응답자 분리지수는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며 클수록 측정의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김명숙, 설현수, 2007).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다연 상관(polyserial correlation), 문항 적합도 지수, 및 잔차부하량을 산출하여 개별 문항의 질을 평가하였다. 다연 상관이 0.3 이하인 문항은 측정하려는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며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Wolfe & Smith, 2007). 양호한 문항의 적합도 지수는 1이며, 1보다 큰 문항은 측정하려는 구인과 관계가 약함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문항은 다른 문항과 내용이 중복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1.5 범위의 문항은 받아들이나, 본 연구는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0.8~1.2 범위의 엄격한 적합도 기준을 적용하였다(홍세희, 조용래, 2006). 극단적으로 큰 잔차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은 Rasch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분산이 단순 무선 오차가 아닌 다른 차원을 암시하는 체계적인 오차 분산을 의미하므로 척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으로 해석한다(Linacre, 2009). 따라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큰 잔차부하량을 갖는 문항은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넷째, 응답자×문항 분포도를 도출하여 문항의 난이도 추정치 분포가 응답자의 속성 추정치 분포를 잘 포괄하는지 확인하고 난이도가 중복되는 문항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응답자의 속성 추정치 분포에 대해 문항의 난이도 추정치 분포가 너무 위나 아래에 몰려있는 문항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며, 난이도가 중복되는 문항들의 경우 응답자의 속성을 여러 문항이 측정하게 되어 유용성이 떨어지므로 단축형 척도를 구성할 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조용래, 2006). 이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와 함께 문항 내용의 중복성 및 문항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

다섯째, 최종 선정된 문항들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원 척도와 단축형 척도 간 상호상관을 검토하였으며, 자기결정성동기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축형 척도의 외적 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반응범주의 적절성 검토

문항의 반응범주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반응범주곡선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X축은 응답자 속성과 문항 난이도 사이의 로짓 차이를 나타내고 Y축은 특정 반응범주가 선택된 확률을 나타낸다. 각 문항반응범주곡선은 왼쪽에서부터 1점에서 5점의 반응범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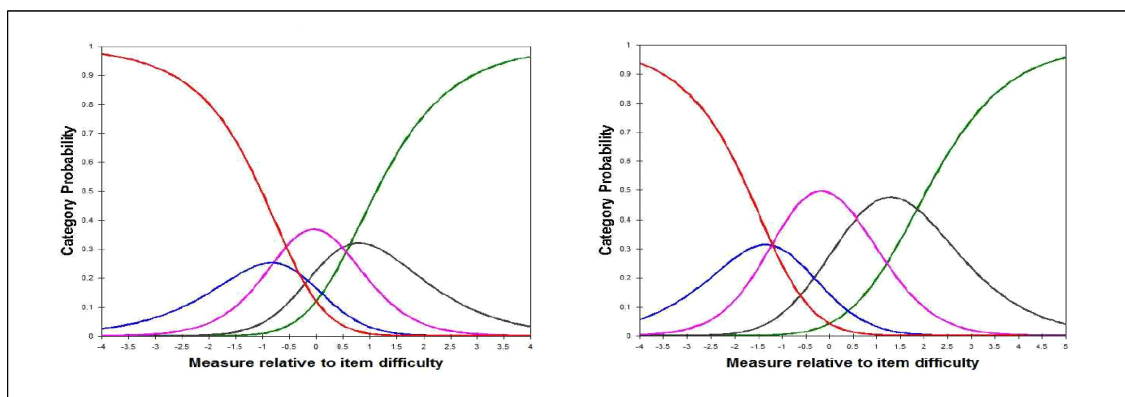


그림 1. PI(좌), PVF(우) 5점 척도 문항반응범주곡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PI와 PVF 모두 각 반응범주에 대해 10회 이상의 관찰 빈도를 보였으며, 평정척도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응답자의 평균 속성 추정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I와 PVF 모두 각 범주의 외적합도 지수가 2.0 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I의 반응범주는 1점과 2점의 척도 경계점이 $-.32$, 2점과 3점의 척도 경계점이 $-.80$ 로 나타났으며, PVF의 반응범주는 1점과 2점의 척도 경계점이 -1.20 , 2점과 3점의 척도 경계점이 -1.22 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척도 경계점이 높아지지 않아 반응범주에 따라 서열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척도 경계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I와 PVF 모두 이웃하는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비교적 좁게 나타났

다. PVF 반응범주의 경우 1점과 2점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 5점 척도의 반응범주 기능

	반응범주	관찰집단		평균능력치	내적합도	외적합도	경계점
		빈도	%				
PI	1	1018	18	-.78	1.09	1.13	
	2	788	14	-.37	.91	.93	-.32
	3	1493	27	.00	.90	.86	-.80
	4	1122	20	.38	.95	.97	.49
	5	1083	20	.85	1.03	1.11	.63
PVF	1	151	4	-.85	1.45	1.83	
	2	251	7	-.29	1.08	1.20	-1.20
	3	902	25	.31	.80	.81	-1.22
	4	1188	33	1.32	.77	.81	.57
	5	1162	32	2.39	1.03	1.00	1.85

주. PI=독립 촉진, PVF=의지적 기능 촉진

PI와 PVF 모두 5점 척도보다는 4점 척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1점과 2점을 1점으로, 3점을 2점으로, 4점을 3점으로, 5점을 4점으로 변환하였다. 4점 척도로 변환한 후 PI와 PVF의 반응범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척도 경계점이 높아져 반응범주에 따른 서열화가 적절하였다. PI와 PVF 반응범주 모두 척도 경계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PI 반응범주의 경우 여전히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비교적 좁게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최소 1.1 이상이 양호하나 2점과 3점의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71, 3점과 4점의 척도 경계점의 거리가 .29로 나타났다. PVF 반응범주의 경우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모두 1.1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PI와 PVF 반응범주 모두 각 반응범주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 4점 척도의 반응범주 기능

	반응범주	관찰집단		평균능력치	내적합도	외적합도	경계점
		빈도	%				
PI	1	1774	32	-1.07	1.07	1.08	
	2	1493	27	-.44	.90	.87	-.57
	3	1122	21	.08	.99	1.00	.14
	4	1083	20	.72	.97	1.14	.43
PVF	1	378	10	-1.03	1.40	1.54	
	2	902	25	-.28	.84	.87	-1.56
	3	1188	33	.88	.81	.81	.09
	4	1162	32	2.03	.97	1.00	1.47

주. PI=독립 촉진, PVF=의지적 기능 촉진

2. 요인구조의 검증

자율성 지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PI 여덟 문항과 PVF 여섯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2개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모형(CFI=.75, TLI=.71, RMSEA=.12, SRMR=.10)에 비해 2요인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였다(CFI=.85, TLI=.82, RMSEA=.09, SRMR=.08). 적합도가 다소 낮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자율성 지지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2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PI와 PVF 각 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2~.81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외, 2019). PI와 PVF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r=.63$, $p<.001$)이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90 이하로 두 요인의 개념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구분되어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3.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제거 시 α 계수를 검토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PI 요인의 α 계수는 .74였으며, 문항제거 시 α 계수는 PI 3번과 5번 문항에서 각각 .74로 나타났다. PVF 요인의 α 계수는 .86이었으며, 문항제거 시 α 계수는 PVF 5번 문항에서 .87로 나타났다. PI의 문항 및 응답자 분리신뢰도는 각각 .99, .69로, 문항 및 응답자 분리지수는 각각 11.59, 1.48로 나타났다. PVF의 문항 및 응답자 분리신뢰도는 각각 .96, .72로, 문항 및 응답자 분리지수는 각각 5.20, 1.62로 나타났다.

표 3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문항들

문항내용		M(SD)	문항 제거 시 α	α
나의 부모님은~				
PI	1. 가족문제를 의논할 때 누구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3.44(1.35)	.71	.74
	2. 내가 언제나 문제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3.34(1.31)	.70	
	3. 집에 계실 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치 또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1.98(1.18)	.74	
	4.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다.	2.73(1.30)	.70	
	5.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주신다.	2.99(1.35)	.74	
	6. 어떤 일에 관해서는 내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3.40(1.27)	.71	
	7. 내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3.21(1.32)	.70	
	8. 내가 독립을 하도록 응원해 주신다.	3.45(1.27)	.70	

문항내용		M(SD)	문항 제거 시 α	α
PVF	1.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하여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	3.66(1.14)	.85	.86
	2. 대부분의 경우 내 입장을 고려하여 상황을 생각해 주신다.	3.93(1.10)	.82	
	3. 가능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4.04(1.04)	.82	
	4.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3.94(1.09)	.81	
	5.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하신다.	4.17(1.07)	.87	
	6.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3.98(1.06)	.82	

주. PI=독립 촉진, PVF=의지적 기능 촉진. 음영부분은 단축형 척도를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임.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다연 상관, 문항 적합도 지수, 및 잔차부하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내·외적합도 지수가 모두 0.8 이하이거나 1.2 이상인 문항은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PI 3번, 5번 문항과 PVF 4번, 5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PVF 1번, 3번 문항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1.21과 0.78로 각각 나타났지만, 적합도 지수가 1.2~1.3 사이이고 0.75~0.8 사이의 문항은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문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았다(홍세희, 조용래, 2006). 다음으로 .30 이하의 다연 상관을 갖는 문항과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여 극단적으로 큰 잔차부하량을 갖는 문항은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PI와 PVF의 모든 문항의 다연 상관의 .40 이상으로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I의 모든 문항은 극단적으로 큰 잔차부하량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VF의 1번 문항은 잔차부하량이 .81로 다른 문항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문항을 제거했을 때 전체 α 값이 높아 지지 않아 다른 차원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PI에 여섯 문항이, PVF에 네 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4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 문항의 적합도

	문항번호	문항측정치	내적합도(Z)	외적합도(Z)	다연 상관	잔차부하량
PI	PI1	-.35	1.09(1.7)	1.09(1.6)	.58	-.10
	PI2	-.25	.89(-2.2)	.90(-1.9)	.63	-.35
	PI3	1.04	1.26(4.3)	1.29(4.0)	.46	-.60
	PI4	.30	.85(-3.2)	.84(-3.2)	.63	-.47
	PI5	.06	1.29(5.5)	1.37(6.5)	.47	-.01
	PI6	-.31	.98(-.4)	1.03(.6)	.57	.62
	PI7	-.14	.88(-2.7)	.87(-2.6)	.63	.29
	PI8	-.35	.88(-2.4)	.87(-2.4)	.62	.66
PVF	PVF1	.58	1.15(2.5)	1.21(3.4)	.72	.81
	PVF2	.05	.86(-2.5)	.87(-2.2)	.76	-.06
	PVF3	-.17	.78(-3.8)	.78(-3.6)	.76	-.61
	PVF4	.05	.68(-6.0)	.69(-5.7)	.80	-.63
	PVF5	-.46	1.74(9.9)	1.71(8.5)	.58	-.07
	PVF6	-.05	.86(-2.5)	.91(-1.4)	.75	.20

주. PI=독립 촉진, PVF=의지적 기능 촉진

4. 문항 난이도의 적절성 검토

난이도가 중복되는 문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PI와 PVF의 응답자×문항 분포도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세로선의 왼쪽은 응답자 속성 추정치의 분포를, 오른쪽은 문항 난이도 추정치의 분포를 나타낸다. 응답자 속성 추정치와 문항 난이도 추정치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문항 난이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PI의 경우 응답자의 속성 점수 분포에 대해 문항의 난이도 분포가 중앙에 몰려있어 속성 점수가 높거나 낮은 응답자에게 적절한 문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PVF의 경우 응답자의 속성 점수 분포에 대해 문항의 난이도 분포가 전체적으로 낮아 속성 점수가 높은 응답자에게 적절한 문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I의 응답자×문항 분포도에서 1번, 2번, 6번 문항들의 난이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용의 중복성과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른 문항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적합도 지수가 1에 가까운 6번 문항을 선정하고 1번과 2번 문항은 제거하였다. PVF의 경우 2번, 4번, 6번 문항들의 난이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번 문항은 제거되었고, 2번과 6번 두 문항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항과도 중복되지 않아 두 문항을 모두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제거되는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PI에 총 네 개 문항, PVF에 총 네 개 문항이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표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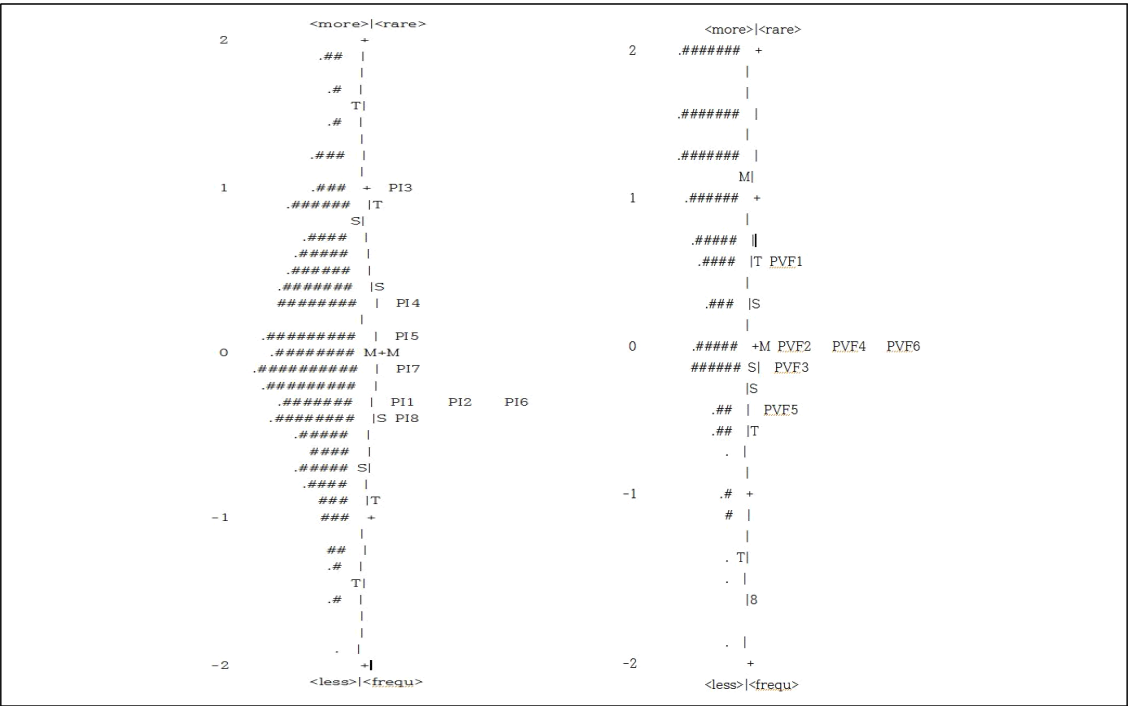


그림 2. PI(좌)와 PVF(우)의 피험자×문항 분포도

5. 단축형 자율성 지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최종 구성된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는 표 3과 같다. 단축형 척도에서 PI의 신뢰도는 .70, PVF의 신뢰도는 .83으로 원 척도의 신뢰도(PI=.74, PVF=.86)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Cronbach's α 는 문항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항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단축형 PI와 PVF 척도의 신뢰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선택된 PI 네 문항과 PVF 네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2개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구조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70.62$, $df=1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FI=.92, TLI=.88, RMSEA=.09, SRMR=.06으로 적합도가 다소 낮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원 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축형 척도에서도 1요인 모형(CFI=.85, TLI=.79, RMSEA=.14, SRMR=.07)에 비해 2요인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였다.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 분포는 PI의 경우 .42~.81, PVF의 경우 .70~.77로 각 문항은 해당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원 척도와 단축형 척도 간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PI는 .89($p<.01$), PVF는 .96($p<.01$)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PI와 PVF의 상관은 원 척도에서 .45($p<.01$)였지만, 단축형 척도에서 .54($p<.01$)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결정성동기와 자율성 지지의 두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PI는 무동기 및 외적 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16$, $-.14$, $p<.01$)을, 확인된 조절 및 내재적 조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27$, $.30$, $p<.01$)을 보였다. PVF 역시 무동기 및 외적 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31$, $-.34$, $p<.01$)을, 확인된 조절 및 내재적 조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37$, $.37$, $p<.01$)을 보였다. 내사된 조절의 경우 PI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r=.02$, $p=.66$), PVF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0$, $p<.05$)을 보였다. 상관계수의 크기가 PI 및 PVF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isher's z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재적 조절에서만 상관계수의 차이($z=-1.47$, $p=.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절유형에서 PI보다 PVF가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z|\geq 2.08$, $p<.05$).

표 5

PI, PVF와 준거변인 간 상관

		무동기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
원척도	PI	-.13**	-.09*	.04	.30**	.30**
	PVF	-.33**	-.41**	-.15**	.36**	.36**
단축형	PI	-.16**	-.14**	.02	.27**	.30**
	PVF	-.31**	-.34**	-.10*	.37**	.37**
단축형 PI와 PVF의 상관 비교		2.96**	3.97***	2.24*	-2.08*	-1.47

주. PI=독립 촉진, PVF=의지적 기능 촉진

* $p<.05$, **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자율성 지지 척도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원 척도와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PI 네 문항과 PVF 네 문항의 부모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 6학년 초등학교생들에게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PI와 PVF의 독립된 구인으로 구분되는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검증하고, PI와 PVF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동기에 대해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문항 및 응답자 신뢰도를 함께 검증함으로써 측정학적으로 양호한 부모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반응범주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PI와 PVF 각 하위척도별 문항반응범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재점수화한 결과, PI의 척도 경계점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비교적 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척도 경계점 서열화와 각 반응범주에 응답한 응답자 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α 계수, 문항 및 응답자 분리신뢰도와 분리지수를 통해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각 문항의 다연 상관, 문항 적합도 지수, 및 잔차부하량을 산출하여 개별 문항의 질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응답자×문항 분포도를 통해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PI와 PVF에서 각각 네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단축형 PI 척도와 PVF 척도의 검사점수의 안정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척도에서처럼 2요인구조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PI와 PVF 두 요인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원 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상관, 자기결정성동기의 다섯 가지 조절유형과 PI 및 PVF와의 상관을 통해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구성한 단축형 척도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5, 6학년 초등학교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PI와 PVF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자율성 지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PI와 PVF가 구분되는 2요인구조가 적합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2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권오연, 임정하, 2021; Soenens et al., 2007; Soenens et al., 2009; Van Petegem et al.,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나, PI와 PVF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1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이회란, 2013),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일차원성 요인으로 간주한 선행연구(김우리, 김정섭, 2016; 서영정, 조영아, 2020; Andreadakis et al., 2019; Mageau et al., 2015; Won & Yu, 201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두 요인 간의 개념적 차이는 원 척도에서 삭제된 문항과 단축형 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PI 척도의 경우, 원 척도에서 네 문항(1, 2, 3, 5번 문항)이 제거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모두 자녀의 개인적 표현을 장려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최종 선정된 네 문항(4, 6, 7, 8번 문항)은 모두 스스로의 사고와 의사결정을 장려함으로써 자녀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5, 6학년 초등학생들은 개인적 표현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것을 부모의 독립 촉진 양육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VF 척도의 경우, 최종 선정된 문항(1, 2, 3, 6번 문항)은 모두 자녀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고 자녀의 관점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부모의 의지적 기능 촉진 양육행동으로 수렴된다. 그에 비해 원 척도에서 제거된 두 문항을 살펴보면, 자녀 스스로의 결정을 허락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4번 문항은 초등학생들에게 의지적 기능보다는 독립을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님 방식대로 강요한다는 내용의 5번 문항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역코딩한 문항으로 부모의 의지적 기능 촉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 척도에서처럼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PI와 PVF의 독립적인 구인으로 서로 구별되는 2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축형 척도는 본 연구에서처럼 PI와 PVF 두 개의 하위척도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상관에 있어 PI와 PVF가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PI와 PVF는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높은 조절유형(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낮은 조절유형(무동기, 외적 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조절을 제외한 무동기,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및 확인된 조절에서 모두 PI보다 PVF가 유의하게 더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동에서 PI와 PVF의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의 관련성을 보여준 기존 연구(김민지, 이수영, 2021; 차유미, 엄우용, 2018)의 결과와 일치하며, 자녀의 적응에 있어 PI에 비해 PVF의 효과가 더 높음을 보여준 선행연구(Bentino-Gomez et al., 2020; Marbell-Pierre et al.,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PVF가 자녀의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일관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Fousiani, Van Petegem, Soenens, Vansteenkiste

& Chen, 2014)와도 일맥상통한다. PI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녀의 행동을 촉진하는 반면, PVF는 개인적인 중요성, 가치, 및 흥미에 기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기결정적인 자녀의 행동을 촉진한다. 이러한 두 요인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면, 행동의 가치와 이유를 충분히 내면화한 자기결정성동기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PI보다 PVF이며,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핵심적인 양육방식 역시 PI보다 PVF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모의 PI가 자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부모의 PVF가 자녀의 자기결정적인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Fousiani et al., 2014)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한편, 내재적 조절에서만 PI와 PVF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재적 조절이 행동 자체의 흥미와 즐거움으로 인해 행동하는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조절유형(Deci & Ryan, 2000)이기 때문에 독립을 촉진하거나 혹은 의지적 기능을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와 부모의 PI 및 PVF의 상관이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결과를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독립 촉진과 의지적 기능 촉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율성 지지 단축형 척도 역시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PI와 PVF의 두 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PI에 비해 PVF가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상관이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 촉진보다는 의지적 기능 촉진을 통해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부모 자율성 지지의 두 가지 차원과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문항내적 일치도, 문항 적합도, 문항 내용 중복성, 문항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측정학적으로 양호한 문항들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를 제안하였다. 단축형 자율성 지지 척도는 검사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므로 실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축형 자율성 지지 척도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을 측정하여 학생들의 적응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양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양육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습동기와 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문항반응범주곡선을 통해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I 척도의 경우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해도 척도 경계점 간 간격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PI 척도의 경우 속성 점수가 높은 응답자와 속성 점수가 낮은 응답자에게 적절한 문항이 부족하였다. 이에 반해 PVF 척도의 경우 속성 점수가 높은 응답자에게 적절한 문항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항의 난이도가 응답자의 속성 점수의 전 범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알맞게 분포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로 개발하여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5, 6학년 초등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연, 임정하 (2021). 부모 양육행동 유형 연구: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를 이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인간발달연구**, 28(4), 1-20. doi:10.15284/kjhd.2021.28.4.1
- 김명숙, 설현수 (2007). Rasch 측정모형에 의한 K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의 양호도 검증. **교육평가연구**, 20(2), 101-124. doi:10.29221/jce.2006.9.1.89
- 김민지, 이수영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34(4), 175-196. doi:10.29096/jee.34.4.08
- 김성숙, 박찬옥, 설현수 (2009). Rasch 측정모형을 활용한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도구 타당화. **열린유아교육연구**, 4(3), 517-556.
- 김아영 (2008).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연구논문.
- 김우리, 김정섭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671-690.
- 서영정, 조영아 (2020).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주도적 행동과 학업참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427-451. doi:10.22251/jlcci.2020.20.8.427
- 이은주 (2021). 자기결정성동기의 다차원성 연속체 요인구조 검증. **교육심리연구**, 35(2), 259-284. doi:10.17286/kjep.2021.35.2.02
- 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 장애 정체감 척도의 Rasch 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4), 273-296. doi:10.20970/kasw.2007.59.4.011
- 이희란 (2013).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성애, 이은주 (2020).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수업참여의 관계: 이중과정모형의 적용. **교육심리연구**, 34(2), 259-283. doi:10.17286/kjep.2020.34.2.02
- 차유미, 엄우용 (2018).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4(1), 27-51. doi:10.51636/jotd.2018.03.14.1.27
- 홍국진, 이은주 (2017).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동기의 종단적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2), 305-326. doi:10.17286/kjep.2017.31.2.05

- 홍세희,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조기현 (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의 Rasch 모형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107-124. doi:10.34244/fy.2018.15.2.107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손수경 (2019). 청소년 회복탄력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미래청소년학회지**, 16(1), 57-86. doi:10.34244/jfoys.2019.16.1.57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 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 Andreadakis, E., Joussemet, M., & Mageau, G. A. (2019). How to support toddlers' autonomy: Socialization practices reported by paren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0(3), 297-314. doi:10.1080/10409289.2018.1548811
- Andrich, D. (1978). A rating formulation for ordered response categories. *Psychometrika*, 31, 84-89. doi:10.1007/bf02293814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nito-Gomez, M., Williams, K. N., McCurdy, A., & Fletcher, A. C. (2020). Autonomy-supportive parenting in adolescence: Cultural variability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1), 7-26. doi:10.1111/jftr.12362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doi:10.1177/0743558403018004003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enning, K., Soenens, B., Van Petegem, S., & Vansteenkiste, M. (2015). Perceived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arly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24(3), 561-578. doi:10.1111/sode.12107
- Costa, S., Cuzzocrea, F., Gugliandolo, M. C., & Larcan, R. (2016).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Child Indicators Research*, 9, 1059-1076. doi:10.1007/s12187-015-9353-z

- Dawson, M., & Pooley J. A. (2013). Resilience: The role of optimism,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1(2), 38-49. doi:10.11114/jets.v1i2.13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doi:10.1207/s15327965pli1104_01
- Fousiani, K., Van Petegem, S., Soenens, B., Vansteenkiste, M., & Chen, B. (2014). Does parental autonomy support relate to adolescent autonomy? An in-depth examination of a seemingly simple ques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9(3), 299-330. doi:10.1177/0743558413502536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doi:10.1111/1467-8624.740201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 Linacre, J. M. (2002). Optimizing rating scale category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Measurement*, 3(1), 85-106.
- Linacre, J. M. (2009). A user's guide to Winsteps Rasch-Model computer programs. www.winsteps.com.
- Mageau, G. A., Ranger, F., Joussemet, M., Koestner, R., Moreau, E., & Forest, J. (2015). Validation of the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scale (P-PAS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7(3), 251-262.
- Marbell-Pierre, K. N., Grolnick, W. S., Stewart, A. L., & Raftery-Helmer, J. N. (2017). Parental autonomy support in two cultu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struals. *Child Development*, 90(3), 825-845. doi:10.1111/cdev.12947

- McCurdy, A. L., Williams, K. N., Lee, G. Y., Benito-Gomez, M., & Fletcher, A. C. (2020). Measuremen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 review of theoretical concerns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382-397. doi:10.1111/jftr.12389
- Ratelle, C. F., Duchesne, S., & Guay, F. (2017).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from multiple perspective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54, 60-72. doi:10.1016/j.adolescence.2016.11.008
- Roth, G., Kanat-Maymon, Y., & Assor, A. (2016). The role of unconditional parental regard in autonomy-supportive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84(6), 716-725. doi:10.1111/jopy.12194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doi:10.1111/1532-7795.1301004
- Soenens, B., & Beyers, W. (2012). The cross-cultural significance of control and autonomy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35(2), 243-248. doi:10.1016/j.adolescence.2012.02.007
- Soenens, B., Park, S. Y., Mabbe, E., Vansteenkiste, M., Chen, B., Petergem, S. V., & Brenning, K. (2018). The moderating role of vertical collectivism in South-Kore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autonomy-suppor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Frontiers in Psychology*, 9, 1-16. doi:10.3389/fpsyg.2018.01080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doi:10.1037/0012-1649.43.3.633
- Soenens, B., Vansteenkiste, M., & Sierens, E. (2009). How ar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support related? A cluster-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187-202. doi:10.1111/j.1741-3737.2008.00589.x
- Van Petegem, S., Beyers, W., Vansteenkiste, M., & Soenens, B. (2012).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Examining decisional independence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8(1), 76-88. doi:10.1037/a0025307

- Vasquez, A. C., Patall, E. A., Fong, C. J., Corrigan, A. S., & Pine, L. (2016). Parent autonomy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3), 605-644. doi:10.1007/s10648-015-9329-z
- Wolfe, E. W., & Smith Jr, E. V. (2007). Instrument development tools and activities for measure validation using Rasch models: Part II-validation activities. *Journal of Applied Measurement*, 8(2), 204-234.
- Won, S., & Yu, S. L. (2018). Relations of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ontrol with adolescents' academic time management and procrastin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1, 205-215. doi:10.1016/j.lindif.2017.12.001
- Zhu, W., Timm, G., & Ainsworth, B. (2001). Rasch calibration and optimal categorization of an instrument measuring women's exercise perseverance and barrier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2(2), 104-116. doi:10.1080/02701367.2001.10608940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short version of the measure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 application of the Rasch model

Moon, Jooyeon* · Lee, Eunju*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the short version of the measure of autonomy support as developed by Soenens et al.(2007) in the sample of 696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applying the Rasch model, the items with sound psychometric properties were sele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utonomy support was empirically distinguished between promotion of independence(PI) and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PVF). The category statistics for PI and PVF were deemed to be satisfactory. Four items tapping PI and PVF, respectively, were selected by examining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it indices, item difficulty, and redundancy in item content. Each short scale of PI and PVF had a satisfactory level of reliability. A two factor model was found to be most favorable for these objectives. Correlations between original and short scales of PI and PVF were found to be high. Both PI and PVF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motivation and extrinsic regulation, whereas the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dentified and intrinsic regulation. Except for intrinsic regulation, PVF was shown to have stronger correlations with all types of regulation than PI. Based on these findings, a short version of the measure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proved to be both valid and reliable. Its utility and its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autonomy support, promotion of independence,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Rasch model, self-determination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